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 서비스 확대

농진청, “민간 공동활용 서비스 확대할 것”... 4700여 자원 유전변이 20일 만에 분석·원격 접속 지원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생명, 보건 분야에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의 대국민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일 농진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해 9월 국내 농업 분야 유일의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를 열고, 슈퍼컴퓨터 2호기를 활용해 민간의 빅데이터 분석 수요를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년 두 차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에 공지하거나 공문을 보내 수요를 조사한 후 분석 서비스 제공처를 선정하고 있다. 올 한해만 종자회사 등



관련 산학연에서 신청한 빅데이터 분석 건수가 19건에 달한다.

센터는 민간으로부터 벼, 콩, 고추 등 4700여 자원의 유전변이 데이터 분석·공개를 의뢰받아 20일 만에 완료, 결과를 공개했다. 기존 방식대로

일반 서버를 이용해 분석했다면 3년 이상 걸렸을 분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 작물보호제 후보물질들을 탐색하는 대단위 선별(스크리닝)을 지원해 280만건의 단백질과 화합물 결합 구조를 6일 만에 예측했다. 이는 일반 서버에서 8개월 걸릴 작업량이다.

아울러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농업 기상 정보 예측 기간도 단축,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예측일로부터 한 달 이후까지의 농업기상을 예측하는 데 6일이 소요됐다면 농생명 슈퍼컴퓨터는

3시간이면 가능하다.

향후엔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원격 접속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분석 시간이 길어 사실상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연구가 슈퍼컴퓨터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슈퍼컴퓨터 민간 공동 활용 서비스를 확대해 농업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부안농협은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김원철 조합장이 농업발전사회공헌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9일 밝혔다

농업발전 사회공헌부문 ‘대상’

김원철 부안농협 조합장, 제10회 전북자치도 인물대상 수상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복지TV전북방송시작에서 치러진 지방소관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김원철 조합장이 농업발전사회공헌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9일 밝혔다.

김원철 조합장은 1988년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래 25년간 농업경영력 향상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헌신했다. 특히 공공비축미 저온창고와 특급참고 개보수자금 지원, 특산물 재배농가에 퇴비·상토 무상지원, 농작물작목반 육성, 재해피해지원 등으로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조합원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 장학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사랑나눔 바자회 등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해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

동세탁창고를 이용한 세탁봉사활동과 칼잡이사업도 시작했다.

한편,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해 스마트팜 딸기작목반을 육성해 캄보디아에 첫 수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천년의숨씨 부안쌀 100톤을 수출하는 등 유통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수훈으로는 철철산업융합 고품질쌀생산유형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유공 포장 등을 수상했다.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인물대상은 복지TV전북방송,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국제뉴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라북도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엄중하게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김원철 조합장은 “오늘날 저의 활동의 기반은 조합원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서 “경영안정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송호석 환경청장, 화학사고 현장 측정분석차량 기동훈련 참관

전북지방환경청은 송호석 청장이 9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실시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의 기동 및 측정분석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상황을 가장한 시료채취, 사고물질 분석 등 365일 현장출동 비상대응 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은 이날 훈련에서 관계자들에게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체훈련과 정기적인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화학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현장 고령화 보완책 찾아 웨어러블 로봇기술 견학

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중소기업 미래혁신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헥사휴먼케어를 방문해 '2024년 제2차 중소기업 미래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박종철 한국무인경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 협동조합 이사장 △이준복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허예희 경기인공지능계공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와 전문가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 고령화와 관련해 작업보조·근로자 질환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의 산업현장 활용사례를 견학했다. 웨어러블 로봇 제조 중소기업인 헥사휴먼케어에 방문해 웨어러블 로봇 기술과 제품을 보면서 참석자들은 하리근



웨어러블 로봇 등 산업용 로봇기술 견학 및 경험

력 지원로봇과 재활로봇을 직접 체험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중 60대 이상의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에 따라 고령인력 산재사고 증가에 따른 현장의 인력운용 부담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기업연구소를 둘러보며 웨어러블 로봇의 실제 적용사례와 효용성을 논의했다.

웨어러블 로봇은 인체에 착용해 근력을 보완하거나 부상 위험을 줄이며,

장애극복을 보조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주로 재활 치료와 산업 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활용하고 있어 물류·항만·건설 등 하역 업무가 많은 산업에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병준 위원장은 “웨어러블 로봇은 현장인력 근골격계 질환예방·현장안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작업보조·공정혁신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입비용 지원비를 확대 등 정부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AI·로봇 등 디지털기술을 통한 안전관리 등 업종별 맞춤형 실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널리 확산하겠다”며 “현장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 2년 연속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획득

전년 대비 점수 상승 협력적 노사관계 선도기관으로 인정받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9일 한국경영인협회(KMR)으로부터 2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노사관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전북개발공사는 93.43점을 획득해 전년(87.7점)

대비 5.73점 상승했다.

특히, 노사관계 성숙도 부문에서 협력, 신뢰, 소통, 참여 등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타 기관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아 협력적 노사관계의 선도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전북개발공사는 노사협의회 안전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회의과정 유튜브 생중계, 타운홀 미팅을 통한 생생

한 소통 강화 등 투명성과 소통 강화에 주력했다. 또한 노동조합 주도의 e-sport 개최, 노조 워크숍, 부서 간 소통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신뢰 분위기를 조성했다.

공사 최정호 사장은 “2년 연속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획득은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K-라이스페스타’ 전국 최다 수상 영예

우리쌀·쌀가공식품 품평회, 전국 16개 수상작 중 4개 업체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일산 컨벤스에서 열린 '2024 우리쌀·우리쌀 K-라이스페스타'에서 전북 관내 우리쌀제품이 전국 최다인 4개업체가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우리쌀 축제로, 250여 개의 제조·판매업체가 참여했으며, 우리쌀 및 쌀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품평회 시상식과 종류주·막걸리·쌀이식 크림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쌀관련 제품을 전시·판매했다.

농협은 이날 행사에 앞서 9월부터 11월까지 약 두달간 우리쌀·쌀가공식

품 공식 품평회를 열었다. 총 423개 업체가 705점을 출품했으며, 이중 1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북지역 수상작으로는 ‘우리쌀 증류주부문’ 최우수상 △전주이강주(대표 조정형) 이강주, 우수상 △매상면주가 고창JB(대표 안재식) ‘느린마을소주’, ‘우리쌀 발효주부문’ 최우수상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대표 한영석) ‘한영석 백수환동주’, 우수상 △초아티브루어리(대표 최상은) ‘도로르 DOROR’가 수상, 전북쌀과 주류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만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